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유지근
가톨릭의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으로써 34개 진료과, 140여 명의 의료진, 첨단 의료기술과 의료장비를 통해 환우 중심의 전인 치료를 구현하고자 반세기 역사 동안 병원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56년 8월 라리보 주교에 의해 설립된 자선진료소 희망의원은 해방 후 매입한 적산가옥을 개조한 작은 진료기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 대전성모병원을 있게 한 터전이었습니다. 이후 1969년 병원을 현재 위치한 중구 대흥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4개의 진료과, 46병상의 병원급 규모를 갖춘 대전성모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제11부속병원으로의 인가를 거쳐 오늘날 34개 진료과, 12개 특성화센터, 666병상에 교직원 1400여명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전성모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산부인과 진료는 1969년 초대 과장인 강재화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분만 건수는 연 1,500건 이상에 달했으며, 3대 과장인 김도강 교수님은 의무원장을 역임하시면서 1991년 pelviscopy 를 도입하여 전자궁적출술에 적용하는 등 미세침습수술에 큰 발전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2010년부터는 단일공 복강경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는 부인종양분과 2명, 산과 2명, 생식내분비분과 2명 등 총 6명의 교수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매 학기 2명이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중심지가 구도심인 중구에서 신도심인 서구와 유성구로 옮겨감에 따라 병원 내원 환자들의 구성은 젊은 환자들보다는 고령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70~80대의 고령 암환자 비율이 25%로 높습니다. 때문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많은 암환자들도 신체적인 부담이 큰 부인암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관리나 합병증 관리,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와 supportive care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간호가 활성화되어 있어 카테터 관리나 경정맥영양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부인암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 각 과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보니 각 과 교수님들과의 의사소통이 더 활발하고 친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향후 병원을 유성구 죽동으로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지연된 상태로,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구는 대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성모병원은 오랜 시간동안 대전 및 충청도의 지역의료보전에 기여해 온 병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진보된 의료를 제공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